

한국 소설에 나타난 담화표지 ‘뭐’의 중국어 번역 양상 연구*

심란희(배재대학교)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중국에서 번역 출간된 한국 소설을 대상으로, 담화표지 ‘뭐’의 번역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번역 유형별 특징과 문제점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소설이 국제 문학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문학 번역의 중요성 또한 함께 부각되고 있다. 특히 담화표지는 담화를 결속하고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며, 화자와 청자 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번역 과정에서 작품의 의미와 분위기를 재현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담화표지의 기능적 등가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번역 텍스트에서는 대화의 자연스러움과 문화적 뉘앙스가 손실될 수 있다. 소설은 음성, 억양,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에 의존할 수 없고 오로지 번역된 텍스트를 통해 의미와 분위기를 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담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8054324)

화표지 번역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그중에서도 의문사 담화표지 ‘뭐’는 한국어 구어 담화에서 고빈도로 사용되며 다양한 의미 기능을 지니지만, 중국어에는 이에 정확히 대응되는 표현이 없어 맥락에 따른 등가 번역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의 중국어 번역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1.2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담화표지 ‘뭐’의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 담화표지의 번역에 대한 연구, 담화표지 ‘뭐’와 중국어 담화표지에 대한 대조 연구를 들 수 있다.

담화표지로서의 ‘뭐’의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협력원리에 근거하여 ‘뭐’의 의미적 특성을 논의한 이한규(1999), ‘뭐’의 문법화 과정과 담화 기능을 분석한 구종남(2000), ‘뭐’의 담화상 의미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이효진(2005)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국어 의문사의 담화표지화 과정과 함께 ‘뭐’의 기능을 다룬 김명희(2005)와 정윤희(2005), ‘뭐’의 사용 패턴과 기능을 분석한 남길임과 차지현(2010) 등의 연구가 있다.

반면 담화표지의 번역에 대한 연구는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담화표지 ‘뭐’의 번역에 대한 연구로는 임세인(2017)이 유일하다. 해당 연구에서는 통번역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담화표지 ‘뭐’와 ‘자’의 한영 동시통역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에서는 ‘뭐’의 기능을 비단정, 부드럽게 하거나 애드룸, 시간벌기, 강조 등 8가지로 분류하고, 각 기능별 통역 양상을 누락, 전환, 등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뭐’는 강조(8회) > 완곡한 표현(4회) > 비단정(3회) > 시간 벌기(3회) 순으로 총 18회 출현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통역 과정에서 누락되어 화자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가 및 전환 사례도 일부 관찰되었으나, 누락 빈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 담화표지에 대한 번역 연구로는 담화표지 ‘아’의 번역을 논의한 서미령(2019)이 있다. 이 연구는 기계번역기를 활용하여 담화표지 ‘아’의 한중 번역 양상을 고찰하고, 기계번역기에서 나타나는 담화표지 번역의 한계성을 분석한 뒤 번역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의 박서영과 최희경(2019)은 영한 더빙 텍스트 코퍼스를 활용하여 담화표지의 기능별 번역 양상을 분석하였다.

담화표지 '뭐'와 관련하여 중국어와의 대조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 왔다. 노금송(2018)은 '뭐'의 의미와 중국어 대응 표현을 비교·분석하였고, 두성에(2016)와 송승남(2016)은 '뭐'와 중국어 대응 표현인 '什么'를 대조하여, '뭐'의 담화표지적 기능이 중국어로 번역될 때 완전히 재현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였다. 형몽아(2015)는 '뭐'를 포함한 한국어 의문사 담화표지가 중국어에서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다루었으며, 이윤경(2016)은 중국어 담화표지 유형에 대한 중한 대조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대조 연구들은 한국어 담화표지의 중국어 대응 표현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생략이나 의역, 대응어의 등가성 여부 등 번역 양상을 포괄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번역 연구와는 구별된다. 번역 과정에서 담화표지가 빈번히 생략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조 연구만으로는 실제 번역의 특성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담화표지의 번역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에서 번역된 한국 소설의 대화문을 연구 자료로 삼아, 담화표지 '뭐'의 번역 양상을 그 의미 기능별로 살펴보고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미 왜곡 및 소실, 번역문에서의 등가성의 실현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담화표지 '뭐'의 효과적인 번역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분석 대상 및 방법

2.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중국에서 출간된 한국 소설의 대화문과 그 중국어 번역문을 전산화하여 연구 자료로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소설 대화문에서 담화표지 '뭐'가 사용된 용례를 추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선행 문맥과 후행 문맥을 포함한 한국어 원문과 중국어 번역문을 Excel 문서에 입력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원문의 참고 맥락을 추가하였다. 분석 대상 소설은 중국 최대

도서 판매 사이트인 당당왕(当当网)에서 한국 소설의 종합 순위, 판매량 순위, 서평 순위 상위 15위 내에 모두 포함된 작품들 중에서 선정하였다. 작가와 역자가 2회 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다음 10권을 선정하였으며, ‘뫼’가 사용된 용례 81개를 수집하였다.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및 추출된 담화표지 ‘뫼’의 빈도는 <표 1>과 같다¹⁾.

표 1
분석 대상 소설

	소설 원본			중국어 번역본			빈도
	작품명	출판 일시	작가	작품명	출판 일시	역자	
1	너의 여름은 어떠니	2012	김애란	你的夏天还好 吗?	2017	薛舟	2
2	녹천에는 똥이 많다	1992	이창동	鹿川有许多粪	2021	春喜	13
3	달리구트 꿈 백화점	2020	이미예	达勒古特梦百 货店	2021	崔海满	3
4	도가니	2017	공지영	熔炉	2020	张琪惠	21
5	백년여관	2017	임철우	百年旅馆	2019	林春燮/王 福栋	7
6	서른의 반격	2017	손원평	30岁的反击	2021	朴正敏	10
7	엄마를 부탁해	2008	신경숙	请照顾好我妈 妈	2021	薛舟, 徐丽红	2
8	채식주의자	2007	한강	素食者	2021	胡椒筒	2
9	한국이 싫어서	2015	장강명	走出韩国	2019	王宁	18
10	82년생 김지영	2016	조남주	82年生的金智 英	2019	尹嘉玄	3

1) 분석에 활용된 자료가 총 10편의 소설, 81건의 사례로 제한되었다는 점은 자료 수집의 양적 한계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담화표지 ‘뫼’의 다양한 의미 기능이 본 연구의 분석 사례 전반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일정 수준의 포괄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2 분석 방법

담화표지는 하나의 형식이 여러 담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담화표지 '뭐' 역시 그러한 특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많은 선행연구에서 '뭐'의 기능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해 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뭐'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번역 양상을 살피고, 그 등가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뭐'의 담화 기능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뭐'의 담화 기능

선행연구	담화 기능	
김선희(1995)	강도의 약화 평가절하	소극적 동의와 부정, 대수롭지 않음, 과소평가, 얼버무리기, 겸양, 불만
이한규(1999)	불확실함	시간별기, 주저함, 발화 교정, 가능성 중 하나임을 표현, 발화 내용 강조, 반박, 자신감(확신), 겸손함, 자기 자랑
구종남(2000)	이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문 태도, 머뭇거리기, 발화 내용의 불확실성, 불쾌감, 반어적 해석, 평가절하의 태도, 화자의 처지나 상황에 대해 불만, 상대의 제안/요구에 부정적 태도, 주어의 행위에 대한 비판적 태도, 무관심이나 비판어적 태도, 초점화, 발화 내용 강조, 문체에 대한 안일한 인식 태도, 도전적 태도, 발화 내용에 대한 비단정적 태도, 이의 제기적인 심리 태도, 부정, 발어사로서 막연한 심리태도 표출, 시간별기	
김명희(2005)	발언의 내용을 부드럽게 하거나 에두름, 자신의 발화를 비단정적으로 만드는 효과, 디딤말	
이효진(2005)	시간별기, 강조, 비난, 부정 및 겸손	
정윤희(2005)	시간별기, 여러 가능성 중 하나, 강조, 놀람(부인), 실망(유감, 체념), 앞선 발화 대상이 이미 자신의 소유라는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음	
남길임·차지현(2010)	시간별기, 부정적 심리태도 반영, 의미 강조, (불만)족스러움, 기대하지 않음, 대수롭지 않음, 비단정적, 거리감 유지	

<표 2>를 보면 담화표지 ‘뭐’의 기능이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담화표지가 지니는 ‘다기능성’과 여러 층위에서 기능이 동시에 실현되는 ‘동시 기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하나의 담화표지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복수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선하는 기본 기능이 존재한다. 예컨대 담화표지 ‘자’의 경우 청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기능이 기본 기능으로 작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말차례 시작, 말차례 획득, 화제 전환 등의 기능으로 확장되어 사용된다.

담화표지 ‘뭐’의 기능 수가 선행연구마다 다양하게 제시되는 것도 서로 다른 층위에서 동시에 실현되는 기능을 각각 독립적으로 제시하였거나, 연구 관점에 따라 보다 유효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기술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김선희(1995, p.17)는 담화표지 ‘뭐’의 기능을 상위 범주로 정리하여 크게 ‘강화’와 ‘약화’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 또한 이러한 입장에 따라 ‘뭐’의 기능을 ‘강조’와 ‘약화’의 두 범주로 나누고, 강조하거나 약화하는 대상에 따라 세부 기능을 유형화하였다. ‘뭐’가 사용된 용례 81개를 분석한 결과, 강조 기능은 ① 발화 내용의 당연함을 강조하는 경우, ② 반어적 주장을 강조하는 경우, ③ 화자의 격양된 태도를 표현하는 경우, ④ 화자의 순응적 태도를 표현하는 경우 등 네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타났다. 약화 기능은 ① 불완전한 예시를 제시하는 경우, ② 비단정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경우, ③ 평가절하의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각 기능별 빈도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
- 2) 김선희(1995)는 ‘강화’와 ‘약화’로 기능을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강화’ 대신 ‘강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강화’는 ‘세력이나 힘을 더 강하고 튼튼하게 함’ 또는 ‘수준이나 정도를 더 높임’을 의미하는 반면, ‘강조’는 ‘어떤 부분을 특별히 강하게 주장하거나 두드러지게 함’을 의미한다. 담화표지 ‘뭐’는 발화 내용이나 화자의 태도를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강화’보다 ‘강조’가 기능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보다 적절한 용어라고 판단하였다.

표 3
담화표지 '뭐'의 기능별 빈도

기능	세부 기능	빈도	비율(%)
강조	1. 발화 내용의 당연함 강조	20	24.69
	2. 반어적 주장 강조	14	17.28
	3. 화자의 격양된 태도 표현	4	4.94
	4. 화자의 순응적 태도 표현	5	6.17
	합계	43	53.09
약화	1. 불완전한 예시	18	22.20
	2. 비단정적 태도 표현	13	16.05
	3. 평가절하의 태도 표현	7	8.64
	합계	38	46.91

이어서 담화표지 '뭐'의 번역 양상을 살피기 위한 번역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번역 방법론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석 방식은 번역 유형을 직역, 의역, 생략으로 구분하는 것이다(임형재와 이선, 2017, p.56).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담화표지 자체의 번역 양상이라기보다, 담화표지가 포함된 문장 전체의 번역 유형을 분석하는 데 주로 적용된다. 박서영과 최희경(2019, p.11)은 담화표지의 영한 번역을 논의하면서 번역 유형을 '한국어 담화표지로의 번역', '한국어 비담화표지로의 번역', '번역 생략'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심란희(2025, p.138)에서는 담화표지 생략, 전체 생략, 전체 의역, 담화표지로의 대응, 비담화표지로의 대응, 오역의 여섯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담화표지 '뭐'의 번역 양상 역시 크게 세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뭐'가 사용된 문장은 대체로 직역되었으나 '뭐'만 생략된 경우이다. 둘째, '뭐'가 포함된 문장이 의역되어 '뭐'에 해당하는 대응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다. 셋째, 번역 과정에서 '뭐'에 대응하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제시된 경우이다. 이러한 1차적 구분을 토대로, 심란희(2025)와 마찬가지로 '생략' 유형은 다시 '뭐'만 생략된 경우와 '뭐'가 포함된 구나 절 전체가 생략된 경우로 세분한다. 또한 원문의 의미가 왜곡되어 의역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오역'으로 분류한다. 오역의 출현 역시 담화표지 '뭐'의 번역 양상을 구성

하는 한 측면으로서, 담화표지 번역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다섯 가지 유형으로 번역 양상을 구분하여 고찰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담화표지 '뭐'의 번역 양상 분류

번역 유형		설명
생략	담화표지 생략	'뭐'가 쓰인 문장이 대체로 직역되었으나 담화표지 '뭐'만 생략된 경우
	전체 생략	'뭐'가 포함된 구나 절 전체가 생략된 경우
의역		'뭐'가 포함된 문장이 의역되어 '뭐'에 대응하는 표현이 번역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대응		'뭐'에 대응하는 표현이 번역문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경우
오역		원문의 의미가 왜곡되어 의역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3. 담화표지 '뭐'의 번역 양상

3.1 번역 유형별 빈도

담화표지 '뭐'의 전체적인 번역 양상은 담화표지 생략, 의역, 대응, 전체 생략, 오역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빈도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담화표지 '뭐'의 번역 유형별 빈도

번역 유형	빈도	비율(%)
담화표지 생략	31	38.3
전체 생략	8	9.9
의역	22	27.2
대응	14	17.3
오역	6	7.4
합계	81	100

<표 5>에 따르면 담화표지 '뭐'의 번역 유형 가운데 '담화표지 생략'이 31회(3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의역' 22회(27.2%), '대응' 14회(17.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생략' 8회(9.9%)를 포함하면 생략 유형의 비율은 더욱 높아져, 담화표지 '뭐'가 번역 과정에서 상당 부분 실현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역'은 6회(7.4%)로 나타나, 그 비율이 결코 낮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어, 담화표지 '뭐'의 번역 양상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담화표지 '뭐'의 기능별 번역 양상³⁾

기능		빈도	담생	전생	의역	대응	오역
강조	1. 발화 내용의 당연함 강조	20	10	1	4	3	2
	2. 반어적 주장 강조	14	2		12		
	3. 화자의 격앙된 태도 표현	4	4				
	4. 화자의 순응적 태도 표현	5	2		1	1	1
	합계	43	18	1	17	4	3
약화	1. 불완전한 예시	18	5	7	2	2	2
	2. 비단정적 태도 표현	13	5		2	5	1
	3. 평가절하의 태도 표현	7	3		1	3	
	합계	38	13	7	5	10	3

<표 6>을 보면 강조와 약화의 모든 기능에서 '생략'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강조 기능에서는 '의역'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대응'은 3회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약화 기능에서는 '대응'이 '의역'보다 높은 빈도로 나타나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의역'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러한 '대응'이 기능적으로 적절한 등가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오역'은 강조와 약화에서 각각 3회씩 확인되었다. '생략'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담화표지만 생략된 사례가 더 많았으나, '불완전한 예시' 기능에서는 다른 표

3) 담화표지 생략은 '담생', 전체 생략은 '전생'으로 약칭하여 기술하였다.

현과 함께 구나 절 전체가 생략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점 또한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2 발화 내용 강조

이는 어떤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표현하거나, 발화 속 자신의 주장을 보다 강하게 드러내고, 특정 사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강조하여 나타내는 기능이다. 담화표지 ‘뭐’가 발화 내용을 강조하는 용례는 전체 81개 가운데 43회로 나타났으며, 이 중 ‘생략’ 19회, ‘의역’ 17회, ‘대응’ 4회, ‘오역’ 3회로 집계되었다. 강조의 대상과 ‘뭐’가 문장에서 실현되는 위치에 따라 이들 사례는 몇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3.2.1 발화 내용의 당연함 강조

담화표지 ‘뭐’는 ‘-지, 뭐’ 혹은 ‘-ㄴ데, 뭐’의 형태로 문장의 끝에 쓰여 발화 내용을 당연한 사실로 강조하여 표현한다. 이러한 용례는 20회 나타났으며, 생략 11회, 의역 4회, 대응 3회, 오역 2회로 나타났다.

다음 <예시 1> ~ <예시 3>은 담화표지 ‘뭐’의 번역이 생략된 용례이다.

<예시 1>

ST: 우리 어머니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거지 뭐.

TT: 我母亲也受惊了。(우리 어머니도 놀라셨어.4)

<예시 2>

ST: 올케 친정집이 여긴데 오빠가 처가 근처로 와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나도 따라오게 됐지, 뭐.

TT: 哥哥搬到嫂子娘家附近开始新事业, 我也跟着来了。(형이 형수님 친정집 근처로 이사 와서 새 사업을 시작했고, 나도 따라왔어.)

4) 번역문 뒤의 괄호 안에 제시한 내용은 번역문을 가능한 한 각 단어에 대응시켜 직역한 문장이다.

<예시 3>

ST: A: 기분 나쁘면 이제라도 선배라고 부를까요?

B: 됐어요. 어차피 같은 인턴인데요, 뭐.

TT: 得了吧。反正我们两个都是实习生。(됐어. 어차피 우리 둘 다 인턴이야.)

<예시 1>에서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라는 표현이 구 전체로 생략되어 원문의 의미가 상당 부분 손실되었으며, 발화 내용을 당연한 것으로 강조하는 화자의 태도 또한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 <예시 2>에서는 화자가 이곳에 온 이유를 오빠를 따라온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특별할 것 없는 당연한 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단지 이유만 제시될 뿐, 이를 당연시하는 화자의 태도는 반영되지 않았다. <예시 3>에서는 같은 인턴이라는 점을 근거로 선배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는 반대 의견을 당연한 사실로 강조하고 있으나, 번역문에서는 이러한 의미가 생략되어 원문의 강조 기능이 드러나지 않는다⁵⁾.

다음은 담화표지 '뭐'가 사용된 문장이 '의역'되면서, '뭐'에 해당하는 대응어가 번역문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이다.

<예시 4>

ST: 마지막으로 갑질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지, 뭐.

TT: 这不是明摆着要最后展现一次他们才是甲方吗?(이건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갑이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게 명백한 거 아니야?)

<예시 4>에서는 '뭐'가 사용된 평서문이 의문문 형식으로 '의역'되었다. 원문에서 화자는 '뭐'를 통해 해당 행동이 '갑질을 한 번 더 하겠다는 것'임

5) 담화표지 '뭐'의 기능, 즉 화자의 태도나 담화의 맥락적 의미와 같은 뉘앙스의 유실은 번역 평가에서 '정확성'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성'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담화표지 '뭐'의 기능이 어느 정도 재현되었을 때 이를 적절한 번역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척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번역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담화표지 '뭐'의 번역이 기능별로 중국어 번역문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주목적을 둔다.

을 강조하고 있다. 번역문에서는 ‘明摆着(뚜렷이 드러나다)’라는 비교적 직접적인 표현으로 이러한 의미를 전달하였으나, 의문문 형식을 취함으로써 원문에 비해 보다 비판적이고 다소 공격적인 인상을 준다.

다음 <예시 5>는 담화표지 ‘뭐’의 기능이 중국어 어기조사 ‘呗’를 통해 실현된 사례로, 원문의 ‘뭐’와 형식적으로 일대일 대응하는 표현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기능적 측면에서는 대응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대응’으로 분류하였다.

<예시 5>

ST: 가끔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불만은 속에서 외치면 되죠 뭐.

TT: 就算你偶尔会感到有些委屈, 到时候只要心里喊出你的不满就行了呗。(설령 네가 가끔 약간 억울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때 마음속으로 네 불만을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지.)

‘呗’는 중국어에서 당연함이나 자명함을 나타내는 어기조사로, ‘불만은 속으로 외치면 된다’는 화자의 인식을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표현한다. 이와 유사하게, 다음 <예시 6>, <예시 7>에서는 중국어 어기조사 ‘呗’, ‘嘛’가 사용되어 원문의 ‘뭐’와 유사한 담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시 6>

ST: 고씨가 아닌 것도 다행으로 여겨. 고추봉보다 김추봉이 낫지 뭐.

TT: 而且幸好不姓高, 金秋峰总比高秋峰强多了呗。(고씨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김추봉이 고추봉보다 훨씬 낫잖아.)

<예시 7>

ST: ‘우리’니 혹은 공유해야 할 무슨 엄숙한 가치니 따위는 말짱 헛거라는 건데, 사실 당연한 얘기지 뭐.

TT: 说什么‘我们’或大家共享的什么严肃的价值, 等等, 全都是虚的。实际上, 这是事实嘛。(‘우리’ 혹은 모두가 공유하는 어떤 엄숙한 가치, 등등, 전부 다 허구지. 실제로, 이게 사실이잖아.)

<예시 6>에서는 ‘났다’ 뒤에 ‘ㄹ’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화자가 자신의 의견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를 기대하거나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뭐’의 담화 기능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ㄹ’이 없는 문장과 비교할 때 원문에서 ‘뭐’로 인해 형성되는 담화적 맥락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시 7>에서 ‘뭐’는 앞선 내용이 당연한 사실임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번역문에서는 ‘这是事实(이것은 사실이다)’ 뒤에 어기조사 ‘嘛’가 사용되어, 해당 내용이 명백한 사실임을 한층 분명하게 제시하고 화자의 확신을 드러낸다. 이는 원문의 ‘뭐’로 인해 형성되는 뉘앙스를 비교적 충실히 재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담화표지 ‘뭐’의 번역이 생략된 <예시 1> ~ <예시 3>의 용례에서도 ‘ㄹ’, ‘ㄹ’, ‘嘛’ 등의 어기조사를 활용하여 번역할 경우, 기존 번역문에 비해 원문에서 형성되는 담화적 맥락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⁶⁾.

3.2.2 반어적 주장 강조

담화표지 ‘뭐’가 수사적 문문에 사용되어 반어적 주장을 강조한 경우이다. 해당 유형은 총 14회 가운데 ‘의역’이 12회로 나타나, 대부분 ‘의역’의 방식으로 번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외에 ‘생략’된 경우가 2회 나타났다.

<예시 8>

ST: 내가 태어난 나라라도 싫어할 수는 있는 거잖아.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어?

TT: 尽管我生长在这个国家, 可是这并不代表我不可以讨厌它。这难道

6) <예시 1> ~ <예시 3>의 원문은 아래와 같이 번역할 수 있다. 다만 보다 적절한 번역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번역 전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이는 본 연구의 주요 논의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고 가능한 번역 사례를 제안하는 수준에 그치고자 한다.

- a. 我母亲这是被吓着了, 一朝被蛇咬, 十年怕井绳呗。
- b. 嫂子的娘家就在这儿, 我哥搬到岳父母家附近开始做生意, 我也就跟着过来了呗。
- c. 算了吧。反正我们都是实习生嘛。

是弥天大罪吗?(비록 내가 이 나라에서 자랐지만, 이것은 결코
내가 이 나라를 싫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 이게 하늘
을 찌를 만큼 큰 죄란 말이야?)

<예시 8>에서는 화자가 ‘뭐’를 사용하여 반문 형식으로 자신의 입장, 즉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번역문 ‘这难道是弥天大罪
吗?’는 ‘难道’를 통해 강한 반문의 의미를 드러내며, 원문에서 형성되는 반
어적 강조의 뉘앙스를 효과적으로 재현하였다.

또한 다음 <예시 9>와 같이 ‘뭐’와 그에 후행하는 표현이 함께 하나의
중국어 표현으로 의역되어, 원문의 담화 기능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한 경우
도 확인된다.

<예시 9>

ST: 아무리 집에 있는 여자라고 해도 얼굴에 얇은 화장 좀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잖아?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TT: 就算是居家女人, 化个淡妆也是理所当然的吧?怎么了?(설령 집
에 있는 여자라 하더라도, 얇은 화장을 하는 것 역시 당연한 것
아니야? 왜?)

<예시 9>에서는 ‘뭐 어쨌다는 거야?’가 중국어의 ‘怎么了’로 의역되었다.
‘怎么了(啦)’는 특정 억양으로 발화될 경우 상대의 문제 제기를 되묻거나 맞
받아치는 의미를 지니며, 원문의 ‘뭐 어쨌다는 거야?’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항변적 태도를 비교적 충실히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뭐
어때’가 ‘怎么了(啦)’로 번역된 사례도 2회 나타났으며, 기능적 측면에서 등
가 번역이 실현된 경우로 판단된다.

그러나 <예시 10>과 같이 평서문 형태로 의역된 경우는 등가 번역으로
보기 어렵다.

<예시 10>

ST: 내가 좋았으면 처음엔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 난 뭐 저렇게 무
례한 애가 다 있나 했다.

TT: 你既然对我的印象那么好, 那刚开始的时候为什么那样对我?我当

时觉得你特别没礼貌。(나는 그때 네가 너무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어.)

<예시 10>에서 ‘뭐 저렇게 무례한 애가 다 있나’는 수사의문문 형식을 통해 상대의 태도를 강하게 문제 삼는 화자의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特别没礼貌(너무 예의가 없다)’라는 평서문으로 처리되어, 단순히 당시의 판단을 서술하는 진술문으로 약화되었다. 그 결과 원문에서 나타나는 반어적 강조와 감정의 강도가 충분히 재현되지 못하였다.

다음은 ‘뭐’가 쓰인 수사의문문이 직역되는 과정에서 ‘뭐’가 생략된 경우이다.

<예시 11>

ST: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무당 말을 쉬 곧이듣나요, 뭐.

TT: 但最近这个世道谁还会轻易相信这些巫女的话呀?! (요즘 세상에 누가 아직도 그런 무당의 말을 쉽게 믿겠어?)

<예시 11>에서는 ‘무당 말을 곧이들을 사람이 없다’는 화자의 인식이 ‘뭐’를 통해 한층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반문의 형식은 유지되었으나, 이러한 강조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표지하는 표현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원문에서 ‘뭐’가 덧붙임으로써 형성되는 담화적 강조의 뉘앙스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⁸⁾.

3.2.3 화자의 격양된 태도 표현

이 경우 담화표지 ‘뭐’는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의 앞에 사용되어, 뒤에

-
- 7) ‘난 뭐 저렇게 무례한 애가 다 있나 했다.’를 ‘还想’과 반문형 표현 ‘怎么会…呢’를 사용하여 ‘我当时还想, 怎么会有这么没礼貌的人呢.’로 번역할 경우 원문에 가까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8) ‘呀’ 대신 어기조사 ‘呢’를 사용하여 ‘现在这种时代, 谁还会那么轻易就相信巫婆的话呢?’로 번역할 수 있다. ‘呢’는 문장 끝에서 사실을 확인하거나 강조하여 상대방을 납득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종종 다소 과장된 어조를 동반한다. 이러한 점에서 ‘呀’보다 원문에서 ‘뭐’가 형성하는 담화적 뉘앙스를 비교적 잘 반영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오는 발화를 대단한 것으로 부각하거나 해당 내용에 대한 화자의 격앙된 태도를 드러낸다. 해당 유형은 총 4회 나타났으며 모두 생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시 12>

ST: 본다이 해변에서 서핑도 같이 해 봤어. 이걸 뭐 육상 선수랑 걸음마 하는 아기랑 붙여 놓은 거 같더군.

TT: 一起在邦迪海滩玩过一次冲浪, 感觉就像一个径赛运动员和一个刚开始学走路的幼儿放到了一起. (함께 본다이 비치에서 한 번 서핑을 한 적이 있는데, 마치 육상 선수와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유아가 함께 있는 것 같았어.)

<예시 13>

ST: 아버지는 대형병원 특진 교수에 아버지 집은, 뭐, 보통 사람은 평생 벌어도 못 살 곳이더만.

TT: 父亲是一家大型医院的专家教授级别的医生, 而你父亲住的房子是普通人赚一辈子钱都买不起的房子. (아버지는 한 대형 병원의 전문가이자 교수급 의사이고, 너의 아버지가 사는 집은 보통 사람이 평생 돈을 벌어도 살 수 없는 집이야.)

<예시 12>에서 ‘뭐’는 두 사람의 서핑 실력 차이가 육상 선수와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만큼 크다는 화자의 인식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예시 13>에서도 ‘뭐’는 그의 아버지 집이 보통 사람은 쉽게 살 수 없는 집임을 부각하며, 그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함께 드러낸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단순한 사실 진술로 처리되어, ‘뭐’를 통해 형성되는 놀라움이나 격앙된 태도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⁹⁾.

9)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과장이나 강조의 뉘앙스를 나타내는 ‘可是...’나 ‘简直...’ 등의 중국어 표현을 활용하여 번역할 수 있다.

a. 我们还一起在邦迪海滩冲过浪。那简直就像把一个田径运动员和一个刚学走路的孩子放在一起比一样。

b. 他父亲是大医院的特诊教授, 至于他家嘛, 那可是普通人一辈子挣的钱都买不起的地方。

a에서 ‘简直’는 어떤 상황이나 사물의 정도가 매우 크거나 극단적임을 나타내며

3.2.4 화자의 순응적 태도 강조

주로 ‘-지 뭐’의 형태로 문장 끝에 사용되어, 화자가 특정 행위를 해야 하는 상황을 수용하고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강조한다. 해당 유형은 총 5회의 용례가 확인되었으며, 이 가운데 ‘생략’ 2회, ‘대응’, ‘의역’, ‘오역’이 각각 1회로 나타났다.

<예시 14>

ST: 그래, 가봐. 자애학원에는 내가 연락하지 뭐.

TT: 好. 你可以走了! 慈爱学院由我来联络. (좋아. 너 가도 돼! 자애학원은 내가 연락하지/연락할게.)

<예시 14>에서 ‘뭐’는 화자가 ‘내가 연락해야 한다’는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이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이러한 ‘뭐’가 생략되어, 원문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순응적 태도가 충분히 표현되지 못하였다.

<예시 15>에서는 ‘-지요, 뭐’가 ‘就行了(-면 되다)’로 의역되었다.

<예시 15>

ST: A: 삼춘, 윗도리 벗으세요. 제가 물을 끼얹어 드릴게.

B: 괜찮습니다. 그냥 세수나 하지요, 뭐.

TT: 不要紧. 我洗把脸就行了. (괜찮습니다. 얼굴만 씻으면 돼요.)

<예시 15>의 ‘就行了’는 직역하면 ‘~면 된다’는 의미이지만, 중국어 구어에서 어떤 행동을 간단한 해결책으로 받아들이거나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뉘앙스를 나타낸다. 이러한 점에서 원문에서 담화표지 ‘뭐’에 의하여 나타나는 화자의 순응적 태도를 재현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다.

화자의 감탄이나 놀라움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b에 사용된 ‘可是’ 뒤에 오는 내용을 강하게 부각시키며 화자의 확신이나 강조된 평가 태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원문에서 ‘뭐’를 통해 형성되는 화자의 놀라움이나 격앙된 태도를 비교적 잘 반영할 수 있다.

<예시 16>

ST: A: 우리집에 갈래? 아니면 어디 가서...

B: 어디 나가서 먹지, 뭐.

TT: 找个地方吃饭好了。(장소 하나 찾아 밥 먹는 게 좋다.10)

<예시 16>에서는 ‘-지, 뭐’가 ‘好了’로 번역되었다. ‘好了’는 상황에 순응하며 결정을 내리는 뉘앙스를 지녀 원문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지, 뭐’가 지니는 ‘나가서 먹는’ 결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드러나 담화 기능이 완전히 동일하게 재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 <예시 17>과 같이 원문의 의미가 단순한 ‘의역’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형된 경우도 확인된다.

<예시 17>

ST: A: 허, 밖에서 듣겠어. 왜 큰 소릴 내고 그래.

B: 들으라지, 뭐.

TT: 就是说给他听的。(바로 그에게 들려주려고 말한 거야.)

<예시 17>의 ‘들으라지, 뭐.’는 ‘듣게 되면 듣는 거지’라는 식으로, 상대가 들을 가능성을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여기에서 ‘뭐’는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화자의 순응적 태도를 강조한다. 그러나 번역문은 ‘바로 그에게 들려주려고 말한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는 의역이라기보다 의미가 왜곡된 ‘오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¹¹⁾.

10) 완전히 직역하기는 어려운 표현이다.

11) <예시 14>, <예시 17>은 ‘就’와 ‘呗’, ‘吧’ 등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번역할 수 있다.

a. 好。你可以走了！慈爱学院那边就我来联系吧。

b. 听就听呗。

여기에서 ‘就’는 어떤 상황을 특별한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결과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의미를 나타내며, ‘呗’는 화자가 해당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는 어조를 나타낸다. 또한 ‘吧’는 화자의 인정이나 허용의 태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문에서 담화표지 ‘뭐’에 의해 드러나는 화자의 순응적 태도가 일정 부분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3.3 발화 내용 약화

이는 담화표지 ‘뭐’가 발화 내용의 중요성이나 확실성을 약화하는 기능이다. 사용 맥락에 따라 불완전한 예를 제시하거나, 상대방의 질문에 비단정적으로 응답하거나, 특정 사실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제시하여 평가절하의 의미를 형성하기도 한다. 담화표지 ‘뭐’가 발화 내용을 약화하는 용례는 전체 81개 가운데 38회였으며, 이 가운데 ‘생략’ 20회, ‘대응’ 10회, ‘의역’ 5회, ‘오역’ 3회로 나타났다.

3.3.1 불완전한 예시

담화표지 ‘뭐’가 예시 제시에 사용될 경우, 대상을 모두 열거하지 않고 일부만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전체 가운데 일부에 불과함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통해 예시의 확실성이나 중요성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 해당 유형은 ‘생략’ 12회, ‘대응’ 2회, ‘의역’ 2회, ‘오역’ 2회로 나타났다. 특히 ‘생략’의 경우 ‘뭐’만 생략된 사례보다 ‘뭐’가 포함된 구 전체가 함께 생략된 경우가 7회로 더 많이 확인되었다.

아래 <예시 18>, <예시 19>에서는 ‘뭐 이런’, ‘뭐 그런’ 등 ‘뭐’와 지시어가 함께 생략되어, 예시가 불완전하다는 뉘앙스가 드러나지 않은 채 단정적인 서술로 전달되었다.

<예시 18>

ST: 초등학교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결혼했는데 그 새어머니가 동생을 낳자 자기는 집안에서 아무도 신경 써 주지 않는 존재가 되어…… 뭐 그런 스토리.

TT: 他妈在他上小学的时候去世了, 爸爸再婚之后, 继母又生了一个, 从此以后家里就没人关心他了。(개 엄마는 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아빠가 재혼한 후, 새엄마가 하나 더 낳으시고, 그 이후로 집에서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

<예시 19>

ST: 그러니까 홀로 서로 더불어 산다, 뭐 이런 뜻이야. 그게 평소 필요한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바라시는 딱 두 가지 소망이래.

TT: “可以独立, 有彼此照顾一起生活”, 这是崔约翰牧师对孩子的心愿。(“독립적이면서도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요한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바라는 마음이야.)

<예시 18>에서는 ‘형사’의 말을 전하면서, 그러한 유형의 이야기임을 ‘뭐’를 통해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뭐 그런 스토리’가 생략되어, 특정 유형에 대한 대략적인 언급이라는 모호성이 사라지고 확정적인 내용으로 전달되었다. <예시 19>에서도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기보다는 ‘뭐 이런 뜻이야’라고 하여 불완전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번역문에서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생략되었다. 이처럼 ‘뭐’는 불완전한 예시를 나타내는 기능과 함께 발화 내용을 가볍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번역문에서는 이에 대한 표현이 생략되어 이러한 뉘앙스가 드러나지 않았다¹²⁾.

다음 <예시 20>은 담화표지 ‘뭐’만 생략된 경우이다.

<예시 20>

ST: 우리끼리 까놓고 이야기해서 뇌물수수나 뭐 배임이나 이런 사무상의 죄목도 아니고 성추행이라.....

TT: 再加上这是性侵害, 不是收送贿赂或是玩忽职守这种事务性的罪名, 而是..... 我实在说不出口。(게다가 이건 성적 침해, 뇌물수수나 직무유기 이런 종류의 사무적인 죄목이 아니라.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네요.)

원문에서 ‘뇌물수수나 뭐 배임이나’의 ‘뭐’는 죄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사무적 범주의 죄’라는 의미를 느슨하게 제시하는 기

12) <예시 18>에서 생략된 ‘뭐 그런 스토리’는 ‘差不多就是这么个故事’, <예시 19>에서 생략된 ‘뭐 이런 뜻이야’는 ‘就是大概就是这个意思’로 번역할 수 있다. ‘差不多’와 ‘大概’는 모호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화자가 내용을 정확하게 규정하기보다는 대략적인 설명으로 제시하는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 ‘这么个’ 역시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보다 대략적인 예시나 유형을 가리키는 구어적 표현으로, 화자가 내용을 불완전한 예시의 형태로 제시하는 뉘앙스를 나타낸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문에서 담화표지 ‘뭐’에 의해 드러나는 대략적이고 예시적인 서술 태도를 재현할 수 있다.

능을 한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或是’로 단순 병렬 처리되어, 열거된 죄목이 확정적인 대상으로 제시된다. 그 결과 원문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예시의 성격은 약화되고, 보다 단정적인 의미로 전달되었다¹³⁾.

다음 <예시 21>은 ‘뭐’가 생략되면서 의미가 완전히 왜곡된 경우이다.

<예시 21>

ST: 별일은 없겠죠? 뭘 골치가 좀 아프다든가...

TT: 没什么事吧? 应该很伤脑筋。(별일 없죠? 아마 매우 골치 아프겠죠.)

원문에서 ‘뭘 골치가 좀 아프다든가’는 ‘골치가 아픈 상황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표현이다. 즉, 확정이 아니라 추측의 범위 안에서 제시되는 완화된 예시이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应该很伤脑筋’으로 처리되어 이를 단정적인 판단처럼 제시하고 있어, 원문의 의미가 변형된 오역으로 볼 수 있다.

대응어가 있는 경우는 2회에 그쳤다. 다음 <예시 22>에서 담화표지 ‘뭐’는 중국어의 ‘比如说(예를 들면)’로 번역되었다.

<예시 22>

ST: 별거 아닌 걸로 구청에 민원 넣고 경찰서에 신고 전화 걸고 그런 다니까. 뭘, 애 재워야 되는데 밖에서 고등학생들이 고성방가로 노래 부른다는 이유 같은 걸로.

TT: 我现在会为了一点儿小事就往区政府递投诉信, 给警察局打举报电话. 比如说, 我得哄孩子睡觉, 但外面有一群高中生在大声唱歌, 这时候我就会打电话让警察来解决.(나는 지금 사소한 일로 구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할 거야. 예를

13) 이는 ‘说句实在话, 这又不是受贿、什么渎职之类的职务犯罪, 而是性骚扰……’로 번역할 수 있다. 여기에서 ‘什么’와 ‘之类的’는 특정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보다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 범주를 대략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표현은 원문에서 담화표지 ‘뭐’가 사용되어 특정 죄목을 정확히 한정하기보다는 예시적으로 언급하며 범주를 느슨하게 제시하는 서술 방식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

들어 말하면 아이를 재워야 하는데 밖에 고등학생들이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 경찰에 전화해서 해결하라고 한다.)

<예시 22>의 원문에서 담화표지 ‘뭐’는 앞서 언급한 ‘별거 아닌 것’의 사례를 가볍게 제시하면서, 그 예시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함을 나타낸다. 즉, 불완전한 예시로 발화를 무겁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번역문에서 사용된 ‘比如说’는 명시적으로 예시를 도입하는 표현으로, 예시 제시라는 측면에서는 원문의 기능과 일정 부분 대응되지만 원문에서 ‘애 재워야 되는데 밖에서 고등학생들이 고성방가로 노래 부르는 것’을 사소한 일로 제시하려는 화자의 의도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¹⁴⁾.

반면 다음 <예시 23>에서는 ‘뭐’와 그 뒤의 표현 ‘그런 거’가 함께 중국어의 ‘什么的’로 번역되어 등가성이 실현되었다.

<예시 23>

ST: 캠퍼스가 그냥 덜렁 건물 하나야. 잔디밭 뭐 그런 거 없어.

TT: 所谓校园其实就是一栋教学楼, 草坪什么的压根就不存在。(소위 캠퍼스라는 것은 사실 한 채의 강의동일 뿐이고, 잔디밭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 않아.)

중국어에서 ‘什么的’는 특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서, 명확히 나열되지 않은 항목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할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예시를 느슨하게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다소 가벼운 뉘앙스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원문의 ‘뭐 그런 거’와 유사한 담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14) ‘뭐, 애 재워야 되는데 밖에서 고등학생들이 고성방가로 노래 부른다는 이유 같은 걸로’를 ‘也就是’와 ‘什么的’를 추가하여 ‘也就是, 比如孩子要睡觉了, 可外面有高中生在大声唱歌什么的.’로 번역하면 ‘뭐’가 나타내는 예시 제시의 기능을 재현할 수 있다. ‘也就是,’는 앞서 말한 내용을 구어적으로 이어 주면서 뒤에 이어질 사례를 가볍게 떠올려 덧붙이는 어조를 형성하며, ‘什么的’는 특정 상황을 엄밀하게 규정하기보다는 일상적이고 특별하지 않은 사례를 예시적으로 제시하는 표현이다.

3.3.2 비단정적 태도 표현

이는 발화 내용의 정확성을 낮추어, 해당 내용을 비단정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용법은 맥락에 따라 ‘머뭇거림’이나 ‘시간 벌기’의 기능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해당 용례는 총 13회 확인되었으며, ‘생략’ 5회, ‘대응’ 5회, ‘의역’ 2회, ‘오역’ 1회의 순으로 분포하였다.

다음 <예시 24>의 번역에서는 ‘뭐’에 대응되는 표현이 생략되어 담화적 증가성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예시 24>

ST: A: 흥선생, 지금 바쁘시오?

B: 뭐 별로... 바쁜 건 없습니다.

TT: 不忙..... 没什么忙的。(안 바빠요..... 바쁜 건 별로 없어요.)

<예시 24>에서 화자는 ‘뭐’를 사용하여 특별히 바쁘지 않다는 점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표현이 생략되어, 단정적인 진술로 제시되었으며 원문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비단정적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다.

다음 <예시 25> ~ <예시 28>은 대응어가 나타난 경우로, ‘뭐’는 각각 ‘毕竟’, ‘呃’, ‘那个’, ‘对了’에 대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시 25>

ST: A: 말 안 했어?

B: 응..... 그냥 뭐, 여기선 하는 일도 다르고 하니까

TT: 嗯..... 毕竟我们在这儿的工作也不一样嘛。(음..... 필경 우리는 여기서 하는 일도 다르잖아.)

<예시 26>

ST: A: 내가 궁금한 거예요, 아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궁금한 거예요?

B: 뭐, 둘 다라고 해두죠. 분리하기 힘드니까.

TT: 呃, 这两个我都很好奇, 毕竟很难把这两样分开来看吧。(어, 이 두 가지는 나도 다 궁금해, 필경 이 둘을 따로 떼어 보기는 어렵

잖아.)

<예시 27>

ST: 똘, 너무 나쁘게 보진 말구. 이것도 하나의 직업생활이니까.

TT: 那个, 你们别用太奇怪的眼光看待这个, 毕竟这也是一种职业嘛。
(저기, 너희 너무 이상한 시선으로 이것을 보지 마, 필경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잖아.)

<예시 28>

ST: 똘,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괜찮아. 어려운 일 아니야.

TT: 对了, 还能玩游戏呢, 没事的, 不难. (맞다, 게임 할 수도 있어, 괜찮아, 어렵지 않아.)

<예시 25>에서는 화자는 ‘그냥’과 ‘똘’을 사용하여 말하지 않은 이유를 다소 완곡하고 비단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단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毕竟’이 사용되어, 원문에 나타나는 머뭇거림이나 완화의 태도는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이유를 강조하는 의미로 전환되었다. <예시 26>에서 ‘똘’은 ‘둘 다’라는 대답을 확신 없이, 다소 비단정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번역문의 ‘呃’는 머뭇거림을 나타내거나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했음을 표시하는 표현으로, 한국어 감탄사 담화표지 ‘어’에 가까운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원문의 ‘똘’이 지니는 담화 기능과는 거리가 있다. <예시 27>에서는 ‘나쁘게 보지 말라’는 내용을 ‘똘’을 사용하여 완화하여 표현하였다. 번역문에 사용된 ‘那个’는 뒤에 이어질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위한 표현으로, ‘똘’의 역할과 일정 부분 유사한 점은 있으나, 기능상으로는 한국어 담화표지 ‘저기’에 대응된다. 이 또한 기능적 등가성이 충분히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시 28>에서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게임을 하는 정도임을 ‘똘’을 사용하여 중요성을 낮추어 표현하였다. 그러나 번역문에 사용된 ‘对了’는 갑자기 어떤 사실이 떠올랐을 때 사용하는 ‘맞다’, ‘참’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이는 단순한 뉘앙스 차이가 아니라 의미의 변형에 해당하며, 오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 <예시 29>에서는 ‘똘’이 쓰인 부분이 의역되었다.

<예시 29>

ST: A: 스물세 평짜리 조그만 아파릅시다.

B: 아직 젊으니까, 그 정도도 뭘 살 만하겠지.

TT: 你还年轻, 住这种面积可以了。(너 아직 젊으니까, 이런 면적에 살면 돼.)

화자는 '그 정도의 조그만 아파트라도 살 만하다'는 자신의 판단을 단정적으로 제시하기보다 '뭐'를 사용하여 완화하고 비단정적 태도로 표현하였다. 번역문에서는 '뭐'에 직접 대응하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나 '可以了'가 '그 정도면 된다'와 같이 상황을 고려한 완화된 판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원문의 비단정적 평가와 일정 부분 대응하며 '뭐'의 담화 기능이 부분적으로 재현되었다.

3.3.3 평가절하의 태도 표현

이는 화자가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그 중요성을 낮추어 평가절하의 태도를 보이며, 상대방에게 그것이 중대한 사안이 아님을 암묵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용례는 총 7회 나타났으며, 그 번역 양상은 생략과 대응이 각 3회, 의역 1회로 나타났다.

다음 <예시 30>에서는 '뭐'의 번역이 생략되었고, <예시 31>, <예시 32>에서는 '뭐'의 대응어가 사용되었으며 <예시 33>에서는 '뭐'가 쓰인 문장이 의역되었다.

<예시 30>

ST: A: 뭐 다른 특이사항은 없죠?

B: 뭘 사고니까요. 그런데 아이 호주머니에서 좀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TT: 是意外。可是孩子的裤子口袋内有个奇怪的东西。(뜻밖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이 바지 주머니 안에 이상한 물건이 하나 있었습시다.)

<예시 30>에서는 '뭐'를 사용하여 특별한 사건이 아닌 단순한 사고라고 표현하면서 해당 상황의 중요성을 낮추어 평가절하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是意外’라고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뭐’에 대응하는 표현이 생략되어 원문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비단정적인 태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¹⁵⁾.

<예시 31>

ST: 연두가 말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를 보고 싶어합니다. 저보고 전화를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뭐 다른 일은 아니구요. 아무래도 사춘기니까요. 예민하니까요.

TT: 研豆她啊, 说很想见妈妈, 所以才拜托我打电话。也不是什么特别的事。青春期的孩子, 总是有些敏感。(연두가 말입니다, 엄마를 매우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늘 다소 예민합니다.)

<예시 32>

ST: 약사도 뭐 어느 날 갑자기 슈퍼마켓에서 어지간한 약 다 팔면 망하겠지. 그런데 그런 날은 안 와.

TT: 要是哪天连超市都一颗随便卖药了, 那药剂师也就到头了。(만약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도 알약을 아무렇게나 팔게 된다, 그렇다면 약사도 끝이겠지.)

<예시 31>에서 ‘뭐’는 전화 용건의 중요성을 약화하며 이를 특별한 일이 아닌 것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예시 32>에서는 약사 역시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여기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번역문에서는 <예시 31>에 ‘也’, <예시 32>에 ‘就’가 사용되어 이러한 완화되고 평가절하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가 어느 정도 재현된 것으로 보인다¹⁶⁾. 이 외에도 번역문에서 ‘也’가 대응어로 나타난

15) ‘뭐 사고니까요.’는 ‘也就是个意外嘛.’로 번역할 수 있다. 여기에서 ‘也’는 완곡한 어조를 형성하며 상황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나타내고, ‘嘛’는 어찌가 자명하다는 의미를 나타내어 그 사실을 당연한 일처럼 제시하는 어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을 통해 사건이 단지 사고에 불과하다는 의미를 드러내며, 원문에서 담화표지 ‘뭐’가 나타내는 완화적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다.

16) 이들 번역문과 ‘也’와 ‘就’가 쓰이지 않은 문장을 연구자를 포함한 이중언어 화

경우가 하나 더 있으며, 아래 <예시 33> 역시 문장 전체적으로는 의역이 이루어졌으나 '也'가 사용되어 '뭐'와 유사한 담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예시 33>

ST: 엄마에게 언니라 불리며 사는데도 좋아보였어. 그냥 스스럼없이 엄마가 여태 길러줬는데 이제 뭐 역할을 바꿨으니 셈이 맞는 거 아냐 하며 밝게 웃었다.

TT: 妈妈叫她姐姐，不过她还是很快乐。妈妈养育了我那么多年，现在也该换换角色了。(엄마가 그녀를 언니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그래도 아주 즐거워했다. 엄마가 자기를 오랫동안 키워주었으니, 이제는 역할을 바꿔야 할 때야.)

<예시 33>의 원문에서 '뭐'는 엄마가 자신을 언니라고 부르며 의지하는 상황을 큰일이 아닌 단순히 역할을 바꾼 셈으로 받아들이는 화자의 평가절하적 태도를 드러낸다. 번역문에서는 '뭐'가 사용된 '이제 뭐 역할을 바꿨으니 셈이 맞는 거 아냐'가 '现在也该换换角色了(이제는 역할을 바꿔야 할 때야)'로 의역되었고, 그 뒤의 '밝게 웃었다'는 생략되었다. 문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의역이 이루어졌으나, '现在也该换换角色了'에서 '也'가 사용되어 '이제 뭐 역할을 바꿀 때가 되었지'와 같은 뉘앙스로 번역됨으로써, 해당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화자의 태도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소설에 나타난 담화표지 '뭐'의 중국어 번역 양상을 분석하여,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자의 태도 및 맥락적 의미의 손실·왜곡 문제를 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뭐'의 담화 기능을 '강조'와 '약화'로 구분하

자 2인의 직관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 해당 표현들이 '뭐'와 유사한 담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는 제한된 직관적 분석에 근거한 것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고, 강조 기능은 ① 발화 내용의 당연함 강조, ② 반어적 주장 강조, ③ 화자의 격양된 태도 표현, ④ 화자의 순응적 태도 표현으로, 약화 기능은 ① 불완전한 예시, ② 비단정적 태도 표현, ③ 평가절하의 태도 표현으로 세분화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각 기능별 번역 양상을 담화표지 생략·전체 생략·의역·대응·오역으로 분류하고, 번역문에서 기능적 등가성이 얼마나 실현되는지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총 81건의 번역 사례 중 ‘담화표지 생략’ 31건과 ‘전체 생략’ 8건을 합한 생략 유형이 3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의역 22건, 대응 14건, 오역 6건으로 나타났다. 번역 유형에 따른 담화 기능 재현 양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담화표지 생략’과 ‘전체 생략’은 ‘뭐’와 같은 담화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가 번역문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문에서 형성되던 담화적 뉘앙스의 소실이 불가피하였다. 둘째, 의역은 경우에 따라 ‘뭐’가 형성하는 담화 기능이 일정 부분 재현되기도 하였으나, 상당수 사례에서는 발화의 기본적인 내용만 전달될 뿐 화자의 태도나 담화적 뉘앙스는 반영되지 않았다. 셋째, 대응은 총 14건으로 적게 나타난 점 또한 특징적인데, 그 가운데 원문의 담화 기능이 충실히 재현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확인되었다. 이는 대응어의 사용 자체가 곧바로 등가성을 보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일부 문맥에서 ‘呗’, ‘嘛’, ‘也’ 등의 표현이 ‘뭐’와 유사한 담화 기능을 수행하여 원문의 담화적 뉘앙스가 일정 부분 재현되는 사례로 나타났다. 넷째, 오역은 단순한 뉘앙스 차이를 넘어 원문의 의미와 화자의 태도 자체가 변형되어 ‘뭐’의 담화 기능이 재현되지 못한 유형으로, 담화표지 번역의 난점이 의미 왜곡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번역 양상이 나타난 이유는 담화표지 ‘뭐’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표현이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으나, 담화 맥락에서 ‘뭐’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역의 오류나 불완전한 재현이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담화표지 ‘뭐’의 기능을 맥락 속에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중국어의 어휘 및 어기 표현 가운데 유사한 담화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표현을 폭넓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제 번역본을 바탕으로 담화표지 ‘뭐’의 다양한 의미 기능별

번역 경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한중 소설 번역에서 나타나는 담화표지 번역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한중 소설 번역에서 담화표지 번역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뭐'의 담화 기능을 재현할 수 있는 번역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그러나 기능별 용례 분석 과정에서 일부 사례에 대하여 '뭐'의 의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중국어 표현을 활용한 번역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연구를 위한 참고 사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보다 체계적인 번역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국어 원문의 어떤 표현이 한국어 번역에서 '뭐'로 실현되는지를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황 맥락과 음성 정보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영화나 드라마 대본에서 사용된 담화표지 '뭐'의 번역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소설 번역과 대조하여 살펴본다면, 보다 다양한 번역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과제는 추후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구중남. (2000). 담화표지 '뭐'의 문법화와 담화 기능. 국어문학, 35, 5-32.
- 김명희. (2005). 국어 의문사의 담화표지화. 담화와 인지, 12(2), 41-64.
- 김선희. (1995). 담화표지의 의미 연구. 목원대학교 논문집, 27, 5-26.
- 남길임, 차지현. (2010). 담화표지 '뭐'의 사용 패턴과 기능. 한글, 288, 91-119.
- 노금송. (2018). 담화표지 '뭐'의 의미와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한국(조선) 어교육연구, 13, 157-179.
- 두성애. (2016). 한국어 담화표지 '뭐'와 '어디'의 비교 및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변대학교.
- 박서영, 최희경. (2019). 담화표지의 기능별 번역 양상 연구. 통역과 번역, 21(1), 1-30.
- 서미령. (2019). 한국어 담화표지 '아'의 중국어 대응 번역 연구. 외국학연구,

50, 273-292.

- 송승남. (2016). 한국어 담화표지 '뭐'와 중국어 '什么'의 대조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심란희. (2025). 한국어 담화표지의 중국어 번역 양상 연구. 담화와 인지, 31(1), 131-158.
- 이윤경. (2016). 중국어 담화표지어 유형 및 중한 대조 연구. 담화와 인지, 23(1), 159-186.
- 이한규. (1999). 한국어 담화 표지어 '뭐'의 의미. 담화와 인지, 6(1), 137-157.
- 이효진. (2005). '뭐'의 담화상 의미기능 연구. 어문논총, 16, 65-81.
- 임세인. (2017). 담화표지 '뭐'와 '자'의 기능별 통역양상 연구.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59-269.
- 임형재, 이선. (2017).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에 대한 중국어 번역 양상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6, 251-280.
- 정윤희. (2005). 국어 의문사 '뭐'의 의미 분석. 겨레어문학, 35, 109-131.
- 형몽아. (2015). 한국어 의문사 담화표지의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뭐', '왜', '어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A study on Chinese translation patterns of the discourse marker 'mwo' in Korean novels

Lanji Shen

Ju Si-gyeong College of Liberal Arts, Paichai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hinese translation patterns of the discourse marker *mwo*(뭐) in Korean novels, focusing on the loss and distortion of the speaker's attitude and contextual meaning in the translation process. The discourse functions of *mwo* were categorized into emphasis and mitigation, and further subdivided into more specific functional types. Translation patterns were analyzed in terms of omission, paraphrase, correspondence, and mistranslation,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whether functional equivalence was maintained. Drawing on 81 instances, the analysis shows that omission was the most common pattern, followed by paraphrase, correspondence, and mistranslation. In omission cases, the absence of equivalent elements made the loss of discourse-level nuances inevitable. Paraphrased translations often conveyed the basic propositional meaning but failed to reflect the speaker's attitude. Correspondence occurred relatively infrequently and did not necessarily result in functional equivalence, which suggests that formal correspondence alone cannot fully reproduce the discourse functions of *mwo*. Using actual published translations, this study presents function-based translation tendencies of *mwo* and provides empirical insights into discourse marker translation in Korean-Chinese literary translation.

Keywords: Korean novels; Korean-Chinese translation; discourse marker; *mwo*; discourse functions

키워드: 한국 소설, 한중 번역, 담화표지, 뭐, 담화 기능

심란희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대학 조교수

lenny1221@pcu.ac.kr

논문 투고일: 2026년 2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6년 3월 2일

2차 심사 완료일: 2026년 3월 8일

게재 확정일: 2026년 3월 16일